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의 산업체계 및 과학기술 혁신분야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의 산업체계 및 과학기술 혁신 분야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6.4.8., 혁신전략기획센터 전부기 부연구위원

요약문

- 중국은 2026년 양회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신질 생산력’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26~’30)」을 승인하고, 기술 주도권을 바탕으로 한 국가 경제·산업 전반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 의지를 표명
 - (현대적 산업체계 구축 및 실물경제 기반 강화)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6대 기초 역량(소재·부품·장비 등)을 강화하고, 반도체·우주항공·바이오 등 10대 전략 신흥산업 육성 및 차세대 에너지·통신 등 미래 성장 동력의 선제적 배치 추진
 -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 및 신질 생산력 발전 주도) 교육·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통합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AI·양자·핵융합 등 8대 국가 중대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며, 기초연구 투자 확대와 기업 중심의 혁신 자원 집적을 통한 독자적 기술 생태계 완성 도모
 - (디지털 중국 건설 심화 및 디지털·지능화 발전 수준 제고) ‘인공지능+’ 전략을 산업·민생·거버넌스 전 영역으로 확산하고, 국가 단위 컴퓨팅 허브 및 데이터 자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디지털·지능화 기반의 생산력 혁명 촉진
- 중국이 핵심기술의 내재화와 독자적 표준 구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예고함에 따라 첨단 산업 생태계의 장기적 위협 및 규범 양분화 리스크가 가시화될 전망

1 개요

- 2026년 3월 4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요강(이하 15.5 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중국의 ’26~’30 기간의 새로운 중장기 발전 계획이 확정
 - 15.5 계획은 2025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를 바탕으로 작성

- 당초 건의에서는 총 12개 중점 과제가 제시되었으나, “디지털 중국 건설 심화”, “인구 발전 전략”, “인민 민주주의 발전”, “조국 통일 추진”의 4개 과제가 추가되어 총 16개 중점 과제로 발표
- 15.5 계획은 제14차 5개년 계획(이하 14.5 계획)과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과학기술 이슈를 핵심 정책으로 강조
 - 주요 목표와 중점 과제 모두에서 산업,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를 앞부분으로 배치
 - 총 18편 62장으로 구성되며, 총론(제1편)과 16개 중점 과제(제2편~제17편), 계획 이행 보장(18편)으로 구성

□ 본 고에서는 15.5 계획에 제시된 주요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된 주요 목표*와 중점 과제**를 분석하여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함

* 제1편 총론(3장)

** 제2편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및 실물경제 기반 강화(4~7장), 제3편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 및 신질 생산력 발전 주도(8~11장), 제4편 디지털 중국 건설 심화 및 디지털·지능화 발전 수준 제고(12~14장)

2 제1편 총론

- 14.5 계획 대비 대내외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15.5 계획 진입에 따른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편
 - 14.5 계획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시작 단계’였다면, 15.5 계획은 2035년 목표 달성을 판가름할 ‘전면적 발전 및 도약 단계’로서, 거대한 대외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국가 전략의 핵심을 첨단 제조 기반의 실물경제 강화로 확고히 이동할 것을 강조
 - 14.5 계획 대비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기존 2순위에서 1순위 과제로 격상시켜 제조업 생태계 자체를 국가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웠고, ‘대외개방’ 역시 9순위에서 5순위로 대폭 상향되어 단순 시장 개방을 넘어 글로벌 기술 규범과 표준 설정을 주도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

〈표 1〉 14.5와 15.5 계획 우선순위 재편

구분	14.5 계획	15.5 계획
제1편	총론	총론
제2편	혁신 주도 발전 견지 및 새로운 우위 창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및 실물경제 기반 강화
제3편	현대 산업체계 발전 가속화 및 실물경제 기반 강화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 및 신질 생산력 발전 주도
제4편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 및 신발전 구도 구축	디지털 중국 건설 심화 및 디지털·지능화 발전 수준 제고
제5편	디지털화 발전 가속화 및 디지털 중국 건설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 및 발전 구도 가속화
제6편	전면 개혁 심화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 고도화	사회주의 시장경제 고도화 및 발전 동력 강화
제7편	농업·농촌 우선 발전 및 향촌 진흥	대외개방 확대 및 협력·상생 국면 개척
제8편	도시화 발전 질 제고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 및 전면적 부흥
제9편	지역 경제 구조 최적화	지역 경제 구조 최적화
제10편	사회주의 문화 발전 및 문화 소프트파워 제고	사회주의 문화 번영·발전
제11편	녹색 발전 및 인간-자연 공생	인구 발전 전략 완비 및 고품질 인구 발전

구분	14.5 계획	15.5 계획
제12편	대외개방 실행 및 협력 국면 개척	민생 보장 개선 및 공동 부유 실현
제13편	국민 소양 제고 및 인재 발전	녹색 전환 가속화 및 아름다운 중국 건설
제14편	민생 복지 증진	국가 안보 체계 현대화 및 평안 중국 건설
제15편	안보 통합 및 평안 중국 건설	국방·군대 현대화
제16편	국방·군대 현대화 및 통일 실현	인민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주의 법치 체계 완비
제17편	사회주의 법치 강화 및 감독 제도 건전화	일국양제 유지 및 조국 통일 추진
제18편	일국양제 유지 및 조국 통일 추진	계획 이행 보장
제19편	계획 이행 보장	-

□ 중국은 15.5 계획에서 다음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목표를 제시

-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 ▲개혁 심화, ▲사회 문명 수준 향상, ▲국민 생활 수준 제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국가 안보 강화의 7대 주요 목표를 설정
- 추가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구속성 지표와 예측성 지표를 5대 분야 20개 목표 지표로 제시

〈표 2〉 15.5 계획 목표 지표

구분	주요 목표
경제발전	- GDP 성장률(합리적 범위 유지), 노동 생산성 증가율(GDP 성장률 상회), 인구 도시화율(71%)
혁신주도	- R&D 투자 증가율(7% 이상),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수(22건), GDP 대비 핵심 산업 부가가치 비중(12.5%)
민생복지	- 실업률(5.5% 미만),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GDP 성장률 수준), 노동인구 평균 교육 연수(11.7년), 인구 1천 명당 의료진 수(8.8명), 요양시설 병상 비율(73%), 영유아 보육 이용률(6%), 기대수명(80세)
녹색·저탄소	- 탄소 배출 감소율(17%), 비화석 에너지 비중(25%), 도시 미세먼지 농도(27 $\mu\text{g}/\text{m}^3$ 미만), 우수 수질 수역 비율(85%), 산림률(25.8%)
안전보장	- 식량 종합 생산능력(1.45조 근), 에너지 종합 생산능력(58억 톤 표준석탄)

※ 산업체계 및 과학기술 혁신 관련 지표

3 제2편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및 실물경제 기반 강화

□ 경제 발전의 중심을 실물경제에 두고 지능화·친환경화·융합화를 바탕으로 제조·품질·우주·교통·네트워크 강국 도약을 견인하며, 첨단 제조업 중심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

- 전통 산업의 최적화·고도화
 - (산업 고도화 및 기초 역량 강화) 철강, 석유화학, 조선, 전자정보 등 국가 중점 산업 전반에 친환경·스마트 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글로벌 질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6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기초 역량 강화를 추진

* ①첨단 신소재, ②기초 부품 및 소자, ③기초 산업용 소프트웨어, ④산업용 공작기계, ⑤첨단 측정기기, ⑥중대 기술 장비

- (산업망 자립) 희토류 및 전략적 핵심 광물 자원의 종합 이용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전략 배후지 및 핵심 산업의 백업 기지를 구축하여 산업망과 공급망의 자주적 통제력을 확고히 확보
-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과도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전정특신(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화)' 육성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금융·인재 지원을 확대

○ 신흥·미래 산업 육성

-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전략적 신흥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하며, 신기술 및 신제품의 광범위한 응용 시나리오를 창출하여 국가의 새로운 경제 기동으로 육성
- * ①집적회로(반도체), ②임바디드 AI, ③바이오 제조, ④신형 배터리, ⑤상업용 우주항공, ⑥국산 대형 항공기, ⑦저고도 장비, ⑧녹색 수소 에너지, ⑨뇌-기계 인터페이스, ⑩첨단 의료기기
- (미래 산업 선제적 배치) 양자 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 및 핵융합 에너지, 6세대 이동통신(6G) 등 미래 혁신 분야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을 마련
- (산업 혁신 생태계 완비) 신흥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샌드박스 규제'와 같은 유연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 제도를 도입하여 신산업의 안전하고 빠른 상용화를 지원

○ 서비스업 발전

- (생산성 서비스업) R&D 설계, 지식재산, 과학기술 성과 전환, 금융, 물류 등 생산성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제 통용 플랫폼 등을 구축하며, 첨단 제조업 및 현대 농업과의 심층 융합 발전을 촉진
- (생활성 서비스업) 양로, 보육, 건강, 가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편적 서비스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온·오프라인 융합을 바탕으로 고품질화·다양화·편의화를 추진하여, 주민의 소비 구조 고도화 수요에 대응
- (서비스업 정책 체계) 서비스 분야의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대외 개방 확대, 특화 용자 및 토지 이용 모델 혁신, 전문 인력 평가 및 신용 체계 정비 등을 통해 글로벌 우수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

○ 현대적 인프라 구축

- (종합 교통망) 고속철도망과 국가 고속도로망,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및 공항 인프라를 조성하고 소외·접경 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하여, 국내외 물류 효율성과 지역 연계성을 극대화한 입체적 종합 교통망을 구축
- (신형 에너지 체계) 풍력·태양광·수력·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 기반을 대규모로 조성하고, 스마트 전력망과 신형 에너지 저장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여 화석 에너지에서 비화석 에너지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계로 전면 전환
- (현대화 수자원망)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재난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가 수자원망을 정비하여 식수 및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하천과 호수의 자생적 생태 복원 추진

- (신형 인프라) 핵심 기반 시설*을 조기 확충하여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 발전 견인
- * ①전국 일체화 연산망, ②위성 인터넷, ③정보통신망, ④데이터 인프라, ⑤저고도 인프라

4 제3편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 및 신질 생산력 발전 주도

□ 교육·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 전반의 자주적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고, 기술과 산업의 심층 융합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신질 생산력’을 창출

○ 원천·핵심기술 강화

- (핵심기술 자립화) 반도체·공작기계·기초SW·첨단소재 등 전략 분야의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R&D 제도 혁신 및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일체화하여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상용화 가속화 추진
- (미래 전략 기술 확보) 세계적 선도 수준을 목표로 AI·양자·바이오 등 전략 기술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차원의 통합 로드맵을 구축하고, 기초·원천 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파괴적 혁신을 유도하는 R&D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2035년까지 기술 강국 도약을 추진
- (기초연구 역량 강화) 극미시, 극거시, 극한 조건 등의 과학 전방위적 기초연구에 대한 중앙 재정 및 민간 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 연구진과 젊은 과학자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해 고위험·고가치 원천 기술 창출 환경 조성

〈표 2〉 15.5 계획의 8대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기술	전략 내용
인공지능	- 고성능 AI 반도체 및 기초 소프트웨어 스택 개발을 가속화하고, 모델 구조 혁신과 가산성·의사결정 알고리즘 연구를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체계 강화
양자	- 지상-위성 통합형 양자 통신망 구축과 더불어 범용 및 전용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양자 정밀측정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핵융합	- 트리튬 연료 주기, 초전도 자석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다양한 기술 경로의 실증 실험을 통해 핵융합 발전의 연구 단계에서 실제 공학적 상용화 단계로의 전환 가속화
생명과학	- 유전자 편집, 세포 프로그래밍 등 원천 기술을 심화하고 합성 생물학 체계 및 바이오 제조 기술 공략 관련 설계 소프트웨어 도구 개발 병행
뇌 과학	- 뇌 인지 및 기능 원리를 분석하여 신경 조절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요 뇌 질환 예방·진단 기술 개발과 더불어 인간의 뇌를 모사한 범용 지능 시스템 구현 추진
중대질병 예방 및 신약 개발	- 주요 전염병 방역 체계를 고도화하고 암·혈관 질환 등 만성병의 조기 스크리닝과 정밀 의료 기술을 강화하며, 희귀질환 및 소아용 의약품 등 국산 혁신 신약 라인업 확대
심해·심지·극지 탐사	- 해저 자원 채굴 및 심해 무인 지능 기술 개발을 통해 ‘교룡탐해(蛟龍探海) 3기’를 건설하고, 지구 내부 탐사 장비 국산화 및 극지 연구를 위한 ‘설룡탐극(雪龍探極) 3기’ 추진
심우주 탐사	- 행성 탐사 2기 및 근지구 소행성 방어 공정을 실시하고, 재사용 가능 중형 로켓 개발과 국제 달 과학 연구기지 건설을 통해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 및 실행력 강화

○ 체계적 혁신 역량 강화

- (국가 전략 기술 역량 강화) 국가 실험실을 중심으로 연구기관, 대학, 선도기업의 역할을 최적화하여 임무 중심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혁신 생태계 조성
- (자원 보장 강화) 범정부 차원의 과기 임무 배분 및 중앙-지방 예산 분담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비 '총액 배정제(包干制)' 확대를 통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중대 인프라와 지역별 혁신 거점의 연계·공유 활성화 도모
- (과학기술 개방 협력)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제 공동 연구와 과학 기금 개방을 확대하고, 연구 데이터 및 자금의 국제 교류 시스템 구축 및 국제 대과학 프로젝트(Big Science) 주도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제고

○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 강화

- (기업 중심의 혁신 자원 집적) 국가 중대 과제 결정 과정에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프로젝트·데이터·인재 등 핵심 자원의 기업 유입 정책을 강화하며, 기업 주도 R&D 과제 수행 시 기술 경로 선택 및 예산 배분에 대한 독자적 결정권 부여 추진
- (기업 주도 산·학·연 융합) 선도기업 중심의 '혁신 연합체' 구성을 지원하여 핵심 공통 기술의 시범 적용을 가속화하고, 직무 발명 성과 권리 부여 및 '선사용 후지불' 방식의 기술 이전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대상 기술 확산 체계 구축
- (금융·정책 지원) 기업의 R&D 비용 공제율 상향, 우수 기술 기업의 주식 및 채권 발행 지원, 중장기 벤처 투자(모험 자본) 활성화 등 강력한 금융 및 조세 지원을 바탕으로 혁신적 신기술이 자금 압박 없이 안정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교육·과학기술·인재 통합 발전 추진

- (전략 통합 추진) 글로벌 교육·과학·인재 중심지 구축을 위해 세 분야의 전략 목표와 자원 배분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국가 전략 인재에 대한 집중 지원과 지역 간 인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적 자원의 유연한 이동 지원 제도 정비 추진
- (혁신형 인재 양성) 첨단 산업 수요에 맞춰 '쌍일류(雙一流)*' 및 신형 연구중심 대학을 확충하고 전략 분야 학과를 파격적으로 확대해 순수 기초 학문과 최신 응용 기술을 아우르는 창의적이고 실전적인 혁신형 인재 양성

* 세계 일류 대학 및 일류 학과 육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고등교육 특성화 사업

- (성과 평가 체계 혁신) 정량적 지표 대신 기술 혁신의 실질적인 성과와 시장 기여도를 중심으로 하는 유연한 인재 평가 체계를 전면 도입하여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고, 우수한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이민 제도 및 파격적인 생활 지원 보장

5 제4편 디지털 중국 건설 심화 및 디지털·지능화 발전 수준 제고

□ 풍부한 데이터 자원과 ‘인공지능+’의 전방위적 확장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과 거버넌스 역량을 고도화하고, 생산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국가 전반의 생산력 도약을 촉진

○ 연산력·알고리즘·데이터의 효율적 공급 강화

- (지능형 컴퓨팅 인프라 확충) 국가 컴퓨팅 허브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저지연·고성능 지능형 컴퓨팅 자원의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친환경 전력과 연계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도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집약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제공
- (AI 모델 및 알고리즘 고도화) 인공지능의 기초 이론 한계를 돌파해 임바디드 AI, 범용 인공지능 (AGI) 등 혁신적 차세대 알고리즘 연구를 가속화하며, 범용 대형 모델과 산업 특화 전용 모델의 동반 업그레이드를 추진
- (데이터 자원 개발 및 활용)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건설하여 공공 데이터의 개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의료, 에너지, 교통 등 주요 산업별 고품질 데이터 세트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국가 데이터 자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 디지털·정보 기술 활용 전면 추진

- (실물-디지털 경제 융합)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행동을 통해 제조업의 지능형 전환(스마트 제조)과 산업 인터넷 보급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거대한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육성
- (생활 서비스 혁신) 교육·의료·돌봄 등 민생 전반에 AI와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지능형 홈·커뮤니티 등 체감형 서비스를 확충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와 AI 기반의 고용 창출 및 공공 서비스의 균등한 보급 확대
- (거버넌스 혁신) 전국 통합 온라인 정부 서비스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부처 간 및 지역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고, 대형 모델을 활용하여 재난 예방, 신속한 지휘 통제, 맞춤형 행정 처리 등 정부의 공공 안전 및 거버넌스 역량 전반의 지능화 발전 추진

○ 건강하고 질서 있는 생태계 조성

- (기초 제도 확충) 데이터 소유권·유통·수익배분·보안 등 4대 기초 제도를 확립하고, 국가 통합 데이터 권리登記 체계와 소유권 분리 제도를 통해 안전한 전국 단위 데이터 거래 시장 구축 및 표준화된 가격 형성 메커니즘 마련
- (규제 메커니즘) AI 전 생태계를 아우르는 알고리즘 심의·투명성 관리·안전 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 구축 및 딥페이크·개인정보 유출 등 데이터 오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력 제고
- (국제 협력 확대) 전자상거래·모바일 결제 등 서비스 수출과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사법 공조 및 규칙 상호 인증을 통한 디지털 영토 영향력 확대 추진

6 시사점

-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은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신질 생산력’ 창출을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투자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확고히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 기술 디커플링(Decoupling)의 가속화: 중국은 ‘자립·자강’ 및 ‘내수 확대’ 전략을 통해 서방의 제재(반도체 장비, 핵심 소프트웨어 등)가 작동하지 않는 ‘독립적 내부 순환 구조’를 만들려 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세계 기술 표준이 ‘미국 표준’과 ‘중국 표준’으로 양분될 가능성을 시사
 - ‘신질 생산력’을 통한 기술 주도권 확보: 중국은 과거 낮은 인건비 기반의 ‘세계 공장’ 지위를 버리고 AI·양자·핵융합 등 ‘전략적 프런티어 기술(前沿科技)’을 선점해 서구권이 장악한 기존 산업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음. 특히 6대 산업 기초 역량 강화, 10대 전략 신흥산업 대규모 육성, 8대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기술 선도 로드맵을 제시하며,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닌 차세대 핵심기술 주권에 기반한 전략적 자립성과 글로벌 우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시사
 - ‘인공지능+’를 통한 전 산업의 지능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핵심 생산 자본으로 규정하고, 소유권, 거래 제도 등을 통한 데이터의 본격적 자산화와 거래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확립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향후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주도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됨
-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기관들은 중국의 15.5 계획을 기술적 우위와 자립을 달성하고, 지정학적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
 - 과학기술 자립·자강 및 독립성 강화: 국제전략연구소(IISS)와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등은 이번 계획이 ‘기술적 최고 우위(supremacy)와 자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외국 기업에 대한 국가적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핵심 전략이라고 평가
 - 지정학적 분절화 및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세계경제포럼(WEF)과 디플로맷(The Diplomat) 등은 중국의 독자적인 혁신 행보가 ‘지정학적 분절화(geopolitical fragmentation)’ 속에서 글로벌 신흥 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가속화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첨단 기술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전망
 -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변수 상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전략연구소(IISS) 등은 찾아지는 지정학적 충격 등 예측할 수 없는 대외 환경과 정책적 불확실성이 중국 15.5 계획의 이행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해 중국도 위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
- 중국의 첨단산업 내재화와 독자적 표준 구축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이는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대중국 수출 기반을 약화시키는 직접적 위협인 동시에, 기술 규범 양립에 따른 새로운 시장 대응 과제를 시사
 - 첨단 제조업 자급률 제고에 따른 초격차 우위 잠식 우려: 중국이 15.5 계획을 통해 반도체·신소재 등 핵심기술의 자급률을 공격적으로 높이는 행보는 우리 주력 산업인 첨단 제조업 분야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함. 이는 글로벌 공급망 내 우리 기술의 대체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기존의 초격차 우위가 희석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의미

- 국가 컴퓨팅·디지털 인프라의 전략 자산화에 따른 생산성 격차 확대 위협: 전국 일체화 연산망 등 지능형 컴퓨팅 인프라를 ‘국가 핵심 자본’으로 정의하고, 중소기업까지 저렴하게 보급하는 전략은 중국 산업계 전반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예정임. 이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디지털 생산성 격차’를 벌리는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기업 중심 혁신 체계를 통한 기술 상용화 속도전 본격화: 국가 중대 과제 결정권을 기업에 부여하고, 선도기업 중심의 ‘혁신 연합체’ 구성을 지원하는 전략은 개발된 기술의 타임투마켓(Time-to-market)을 극단적으로 단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원천 기술의 산업현장 전이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글로벌 기술 사업화 및 신제품 출시 경쟁이 유례없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국가 주도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혁신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글로벌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와 전략적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시사
- 부처 간 연계를 통한 국가 임무 중심의 거버넌스 고도화: 중국은 교육,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개별 분야가 아닌 하나의 ‘일체화된 전략’으로 묶어 국가 중대 과제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우리도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같은 국가적 핵심 임무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함
 -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연구 환경 개선: 중국이 이번 계획을 통해 기술 이민 등 공격적인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점은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예고함. 국내 핵심기술 인력의 이탈을 막는 방어적 조치에 더해, 우수한 해외 연구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 및 연구 몰입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참고문헌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요강(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五个五年规划纲要), 2026.3.12.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목표 요강(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2021.3.11.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五个五年规划的建议), 2025.10.2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15차 5개년 계획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025.11.28.
- 산업연구원, 중국 15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전략 전환과 우리 산업의 영향 및 대응, 2026.1.30.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6년 중국 양회 :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과 전망, 2026.3.20.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제15차 5개년 계획과 중국의 산업·과학기술 재편, 2026.3.21.

- 국제전략연구소(IISS), China's 15th Five-Year Plan, 2026.3.23.
- 세계경제포럼(WEF), What does China's new 5-Year Plan mean for global trade and investment?, 2026.03.30.
- 아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Five takeaways for US policymakers about China's new five-year development plan, 2026.03.31.
- 국제통화기금(IMF), China's New Chapter: Rebalancing and Unleashing Market Forces, 2026.03.22.

저자

KISTEP 혁신전략기획센터 전부기 부연구위원 (bchun@kistep.re.kr, 043-750-2670)